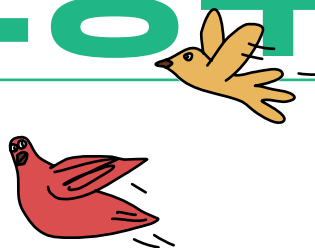


Part 1

여행

교통수단별



1. 버스
2. 철도
3. 자동차
4. 선박
5. 항공
6. 도보, 개인용 이동 기구

여행 교통수단별 종합 안내

선박

선착장 주변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배가 완전히 정박한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합니다.
배에 오른 뒤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위치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버스

승하차할 때는 물론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잦습니다.
시내 버스에선 손잡이를 꼭 잡고
고속버스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땐 차량 기본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항공

이착륙 시 의자를 원위치로 하고,
창문 스크린을 올리는 등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켜지면 이동을 자제합니다.

철도

열차가 움직일 때 승하차를 하지 않습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지거나
출입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열차 출발 시간 전 승강장에 도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개인용 이동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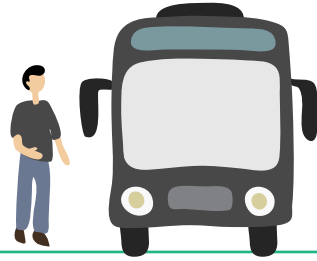
헬멧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과속하지 말고 오가는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람이 밀집한 곳이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하차 후 이동합니다.

도보

횡단보도에서는 한 걸음 뒤에서 대기하고
초록불이 들어오면 양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지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조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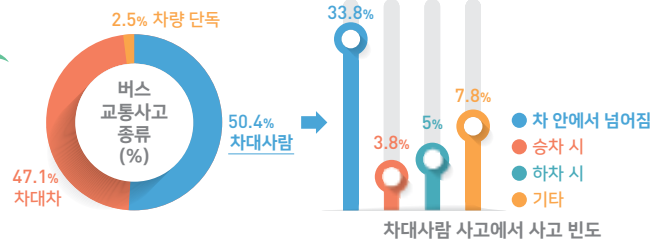
여행 교통수단별

1. 버스



교통사고 외 버스 안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기 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주의하며, 버스 안 소화기나 비상 탈출용 망치 등 안전 기구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출처 : 버스공제조합 2016_2018, 버스 차내 안전사고 감소 방안 연구, 한국운수산업연구원, 2019]

승하차 시 공통 주의 사항

버스 탑승 시에는 차례를 지키며 앞문을 이용하고 하차 시에는 뒷문을 이용합니다.
사람이 많을 때 문에 끼이지 않도록 계단에 서 있지 말고 완전히 올라서야 합니다.

버스 안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좌석 이용 시에는 교통 약자를 우선 배려합니다.
음식 냄새와 소음은 다른 승객과 안전 운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차 시

내려야 하는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벨을 누릅니다.
하차 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하차 시 가방이나 옷자락이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고속버스 이용 시

운행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차내 소화기, 비상용 망치 등 안전 장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휴게소에서 도로 이동 시 주변을 살펴 사람이나 차량과의 충돌에 주의합니다.



사례 ① “차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합니다.”

단풍놀이를 떠난 한 고등학생은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을 보다 급히 버스를 탑승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학생은 손잡이를 잡는 대신 기둥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다 급정차할 때 넘어져 다쳤습니다. 차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스마트폰 사용은 멈추고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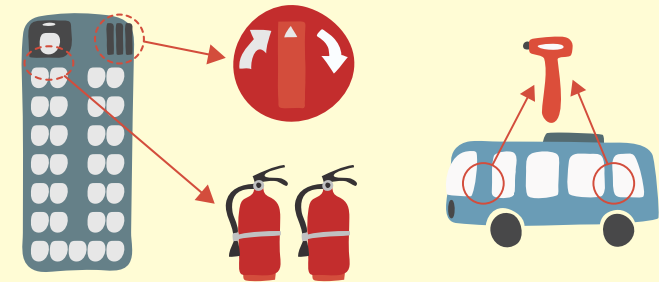
사례 ② “고속 도로 휴게소에서 이동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20대 여성과 친구들은 고속 도로 휴게소 환승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를 타기 위해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버스 출발 안내를 듣고 급히 정류장으로 뛰다가 출구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고속 도로 휴게소는 자동차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차량 이동도 많습니다. 사람이나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TIP

버스 내 안전 장비 확인!

버스 안에 설치된 출입문 개폐용 밸브, 비상 탈출용 망치,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 : 버스 이용자 안전 교육 가이드, 행정안전부]

교통 약자 배려!

임산부, 노인, 장애인, 기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INFO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www.kobus.co.kr - 승차권 예매, 유실물 확인, 휠체어 좌석 예매
전국버스공제조합 www.ebus.or.kr - 교통사고 예방 동영상, 사고 보상 관련 민원

여행 교통수단별 2. 철도



사람이 많고 혼잡한 철도를 이용할 땐 역사, 승강장, 열차 내 등 모든 곳에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 이동 시 다른 사람이나 시설물과의 충돌에 주의하고 승강장과 열차 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역사 내

도착 및 출발 시간에는 역사 이용 인구가 많으니 이동 시 충돌에 주의합니다.
출발 시간 전에 도착해 열차 탑승을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승강장 안전시설의 위치와 대피 경로를 확인합니다.



승하차 시 및 열차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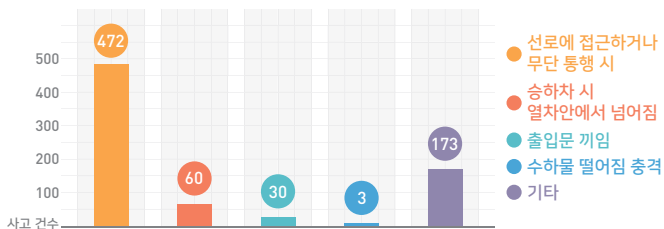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고 안내 방송을 집중해 듣습니다.
기존 탑승객이 모두 하차한 뒤 차례대로 승차합니다.
승강장에서 추락, 열차 사이에 발 빠짐, 출입문 끼임 사고에 주의합니다.



철길 여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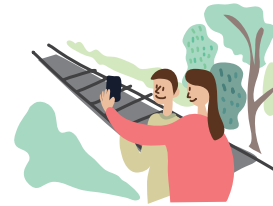
철길 꽃 축제를 방문하거나 간이역에 방문할 땐 철길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열차가 다니는 선로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선로에 넘어지거나 신발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밤에는 승강장과 선로, 주변 도로 파악이 어려우니 이동을 자제합니다.

선로 통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08~'17 철도 관련 사고 738건

[출처 : 2018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국토교통부]



사례 ① “철길에서 무리한 사진 촬영을 금합니다.”

열차가 운행되는 간이역에 놀러 간 커플은 역사와 철길을 구경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한 이들은 역무원의 경고를 받고 급히 철길을 벗어나 사고를 면했습니다.
간이역과 같은 철길 여행지에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사진 촬영을 하지 말고 빠르게 철로를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역무원의 안내를 따르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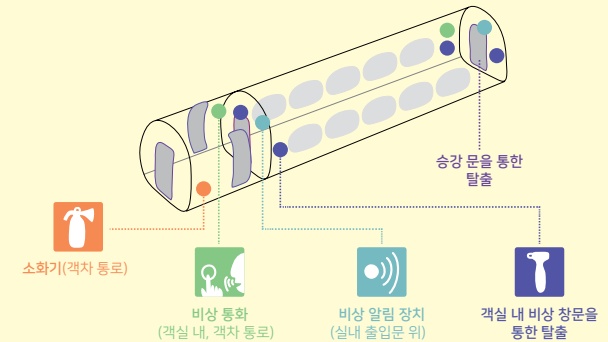
사례 ② “열차는 여유롭게 탑승해야 합니다.”

한 여성이 열차에 탑승하던 중 열차 출입문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기차 출발 시간이 임박해서 열차에 뛰어오르다 계단에 다리를 부딪쳐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역사 내에서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열차 출발 시간에 여유 있게 도착해야 합니다. 출발하는 열차에 뛰어오르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TIP

철도 안전 장비!

소화기, 비상 탈출용 망치, 출입문 개폐용 밸브, 긴급 통화 장치의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합니다.



[참고 : 철도 이용자 안전교육 가이드북, 행정안전부]

위급 상황 시 대피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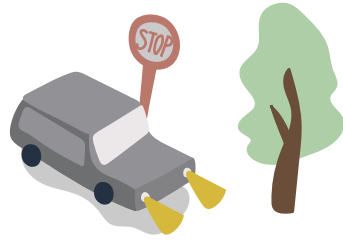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거나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유리창을 깬 후 비상구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코와 입 등 호흡기를 보호하고 철로 대피 시 전동차 진행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출입문 수동 개폐 방법!

1. 출입문 쪽 의자 아래 또는 벽면에 작은 뚜껑 속 비상 개폐 장치를 찾습니다.
2. 뚜껑 속 콕을 당기거나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립니다.
3.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4초 기다립니다.
4.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추면 출입문을 양쪽으로 밀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행 교통수단별

3. 자동차



과속, 신호 위반 등 운전 기본 안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현지 날씨를 미리 확인해 기상 상태에 따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 타이어, 전조등을 비롯한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전 좌석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주행 전

운행 전 이동 경로와 예상 소요 시간을 미리 파악합니다.
폭우와 폭설 등 기상 상태에 따른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출발 전 전조등과 타이어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렌터카의 경우, 수령 시 차량의 외관을 살피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렌터카에 탑승하면 자신의 신체에 맞게 운전석과 룸 미러 등을 조절합니다.



주행 중

운행 중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유아의 경우,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폭우, 강설, 안개 등 기상 악화 시 운행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낯선 지역에서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평소보다 더욱 주의합니다.
주행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스마트폰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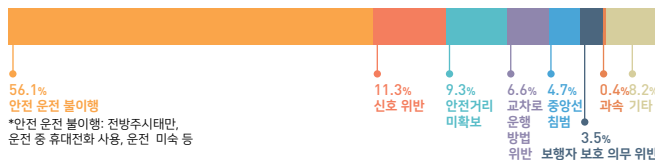


뜻밖의 사고

혼유 렌터카 주유 시 차량의 유종을 확인합니다.
펍크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해 천천히 갓길에 정차합니다.
시동 꺼짐 차량을 이동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상등, 삼각대 등 안전 조치 후 대피하고 신고합니다.
낙하물, 돌 튀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더라도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 운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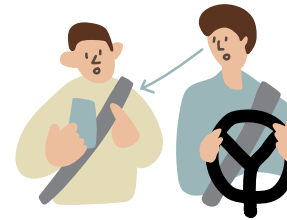


교통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출처 : 2018교통안전연차보고서; 교통사고 통계, 경찰청, 2017]

도로 노면 특이 상태

- *수막 현상 : 도로 위에 물이 고여 자동차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형성되어 차가 물 위를 달리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 *블랙 아이스 : 도로에 스민 물이 새벽 추위에 언 현상으로 운전자의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 *서벗 노면 : 눈이 녹아 수분을 머금고 있는 눈길로 얼어 있는 도로와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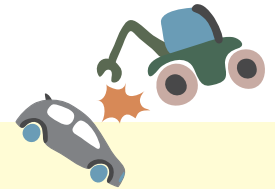


사례 ① “동승자의 스마트폰 사용도 위험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가던 20대 남성과 친구들은 거리가 멀어 금세 지루해졌습니다. 그러자 동승자는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 역시 스마트폰에 눈길을 주다가 주행 차선을 이탈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 도로와 일반 도로 모두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합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운전 중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이나 DMB 시청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②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는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한 가족이 산 아래 숲속으로 소풍을 가고 있었습니다. 초행길이고 산길이라 운전자는 최저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을 했습니다. 갓길 앞을 지나는 길에 예상치 못한 트랙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깜짝 놀라 급정차를 해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는 산길, 숲길, 농어촌 지역 등의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동물이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TIP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1. 일반 도로 교통사고 대처법

즉시 정차 → 비상등 점등 → 차량 후방에 불꽃 신호기, 삼각대 등 안전 조치
→ 부상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구호 → 정황 증거 확보(촬영, 스프레이, 목격자)
→ 경찰서 신고(경미한 사고로 보험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2. 고속 도로 교통사고 2차 사고 대비 행동 요령

가급적 갓길 쪽으로 정차 → 비상등 점등 → 도로 바깥으로 대피 → 경찰서 신고
→ 차량 후방에 불꽃 신호기, 삼각대 등 안전 조치

[참고 : 경찰청]



INFO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www.roadplus.co.kr

- 전국 교통 정보, 경로 검색, 혼잡 구간, 노선별 교통 정보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 www.i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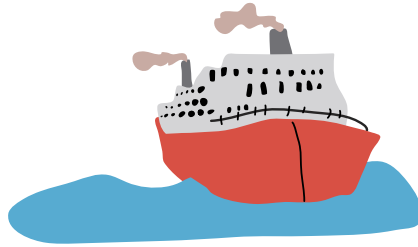
- 전국 교통 정보, 돌발 정보, 소요 시간, 우회 도로, 버스 전용 차로, 고속 도로 이용 안내

도로교통공사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교통안전 교육, 안전시설 검사,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여행 교통수단별

4. 선박



선박을 이용할 때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배치 장소와 대피 방법을 확인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선착장과 선박 바닥에는 물기가 많아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형 선박을 이용할 때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항 전

승선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승선표를 작성할 때 위급 상황 발생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적습니다.
선착장과 선박 바닥에는 물기가 많아 미끄러우니 주의합니다.
선착장에서의 날씨와 해상의 날씨는 다른 경우가 잦으니 미리 날씨를 확인합니다.
승선 후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배치 장소와 대피 방법을 확인합니다.



운항 중

선내 이동 시에는 바닥이 미끄럽고 선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난간을 잡고 이동합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 난간 밖으로 몸을 내미는 등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기관실, 조타실 등 출입 제한 구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박 내에서 음주는 삼갑니다.
해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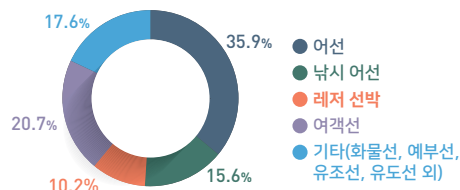


사고 시

선박 내 안내 방송에 귀 기울이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직접 신고가 필요한 경우 선박 이름과 해상 위치, 사고 내용 등 상황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구조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인명 사고를 포함하는
선박 사고에서
선박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명사고 선박의 종류(%)

[출처 : 2018해상조난사고연보, 해양경찰청]

사례 “해상 날씨와 육상 날씨는 다릅니다.”

낚시 동호회 활동을 하는 한 남성은 동료들과 함께 야간 낚시배를 탔습니다. 해상 예보에 풍랑이 있었지만 육상 날씨는 괜찮았고 선주 역시 바다는 잔잔할 거라고 출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낚시를 하지 못할 정도로 풍랑이 심해 낚시배는 선착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상과 육상의 날씨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해상의 날씨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TIP

해양 사고 발생 시 119 신고!

해양에서 자신의 위치를 몰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해양 사고 발생 시 '119'로 신고합니다.
2. 119에서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3. 문자 메시지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합니다.
4. 휴대 전화의 위도와 경도 좌표가 119로 자동 전송됩니다.

인명 구조 장비 확인!

선내에 구명동의, 구명부환, 구명줄, 통신 장비, 소화기, 자기 전화등, 비상 탈출용 도끼 등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행 교통수단별

5. 항공



공항에서는 사람들과 시설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량 및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 레저 활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이용 전

기내 반입 금지 품목과 위탁 불가 수하물을 확인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 경우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항공편과 이동 사항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미리 알립니다.
공항에서의 소요 시간을 감안해 탑승 시간보다 여유 있게 이동합니다.



기내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안전 수칙 안내문을 읽고 승무원의 시연에 집중합니다.
탑승한 기내의 비상구와 안전 장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대응 방법을 익힌 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시연해 봅니다.
기내 통로 및 화장실 바닥 등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동에 주의합니다.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꺼졌을 때도 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시

안내 방송과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산소마스크는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노약자나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도와줍니다.
비상구 옆 좌석에 앉은 승객은 비상 상황 시 승무원의 보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튜브형 비상 슬라이드로 탈출할 때는 날카로운 신발이나 장신구 없이 이용합니다.



항공 레저 이용

반드시 승인 업체를 이용하고 체험 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행기의 기체는 작지만 프로펠러는 고속이기 때문에 기체 접근 시 주의합니다.

경량 및 초경량 항공기의 수와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량 및 초경량 항공기 대수: 1994년 80대에서 2014년 604대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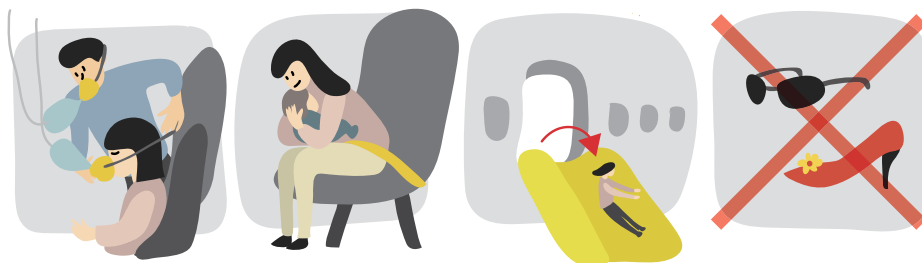
비행기 사고 건수('08~'17)

[출처: 2018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국토교통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항공기 사고의 골든 타임은 첫 90초입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승무원 지시 → 산소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 도와주기 → 좌석 등받이 세우고 안전벨트 착용
→ 머리를 무릎에 대고 팔로 허벅지 감싸기(아이는 성인 무릎에 얹힌 후 몸을 굽혀 안기)
→ 코와 입 등 호흡기 보호 → 탈출 시 바닥 유도등 따라 비상구로 이동
→ 비상 슬라이드로 탈출 시 날카로운 신발 및 장신구 제거



TIP

비행기 이착륙 시 창문의 스크린을 올리고 좌석과 테이블은 제자리로!

창문의 스크린을 올리는 것은 기상 악화나 화재 등 비상 시 외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피 시 장애물이 없도록 좌석과 테이블을 원위치합니다.

비상구 좌석 자격 및 의무 사항 준수!

비상구 좌석은 만 15세 이상, 원활한 정보와 지시 전달자,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 완비자에게 배치됩니다. 또한 비상 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구를 작동해야 하고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INFO

항공기상청 <http://amo.kma.go.kr>

- 전국 항공 기상 및 공항 주변 기상 특보, 세계 공항 날씨 정보

6. 도보, 개인용 이동 기구



여행지에서 걸어 다닐 때도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주변을 구경하다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전거, 스쿠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기구를 이용할 때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속도를 줄여 운행하도록 합니다.



도보

안전 보행 3원칙을 지키고 도로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는 도로에서는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합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나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놓칠 수 있으니 이어폰 사용은 자제합니다.



자전거

헬멧, 장갑,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 장비를 필수로 착용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합니다. 여행지에서 다른 사람이나 시설물과의 충돌에 주의합니다. 사람이 많은 길이나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갑니다.



개인용 이동 기구

사전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기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출발 전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합니다. 부딪치거나 넘어질 수 있으니 저속으로 운행합니다. 기구의 정해진 인원내 맞게 탑승합니다.



안전보행 - 방어보행 3원칙



사례 ①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30대 여성은 여행지의 전통 시장을 방문해 장터 풍경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른 여행지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앞 도로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없어 지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는 가장자리로 걸어야 하며, 도로 주변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지나가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와의 충돌에 조심합니다.



사례 ② “전동 킥보드는 저속으로 운행합니다.”

20대 여성은 여행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습니다. 탑승 전 사전 안전 교육도 받고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조심해서 이동했지만 뒤에서 과속 주행하던 전동 킥보드와 충돌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행지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과 다른 전동차도 많기 때문에 전동차 운행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차를 타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사람이 많거나 혼잡한 곳에서는 하차 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개인용 이동 기구는 전용 도로 이용 준수!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기구는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용 이동 기구 역시 음주 운전은 위법!

개인용 이동 기구의 음주 운전은 위법이며, 다른 사람과의 충돌로 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 사고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